

## 중성자의 정체와 중성미자의 기원

별빛이라든지 태양과 같은 세상 빛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전자한테 포획된 중성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중성자에서 중성미자(中性微子)를 내뿜는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1초에 약 100조 개의 전자중성미자가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명이 있었던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던 중성미자와 수많은 별들의 폭발과정에서 나온 중성미자가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통과하는 것은 수백조 개나 된다.



출처: 유튜브 「NRF한국연구재단」\_유형일자 중성미자를 찾아서

### 세상 빛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린다.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이니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니,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빛이 태양에서 출발하여 지구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 30초이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광욕으로 즐기는 햇빛은 8분 30초 전에 태양에서 방출된 빛으로서 뒤늦게 몸으로 쬐고 있고 셈이다. 이런 이치로 태양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현재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은 죽은 별도 있으며, 운 좋게 선광을 받더라도 별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도 그건 이미 더 오래전에 일어난 현상이었음을 알아야겠다. 이상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어떤

물체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증거요, 또한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진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중성미자는 중성자의 분비물이다

태양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밝힌 논문의 발표 시기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이며, 물리학자 「한스 베테」의 태양을 비롯한 별의 내부에 있어서의 에너지 생성에 관한 발견에 관련된 논문이다. 태양과 같은 항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수소가 뭉쳐 헬륨이 되는 핵융합반응을 통해 생성된다는 이론이다.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핵의 양성자 2개가 서로 충돌하여 중수소 1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양전자 1개와 전자중성미자 1개가 생성된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양전자 2개가 충돌하여 중수소 1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왜 생겨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양전자와 중성미자에 대한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자의 첨단과학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비추어보면, 알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먼저 기본 지식을 알 필요성이 있다. 중성자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에너지)으로서 하나님의 빛, 생명력, 하나님의 영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전자는 마귀의 속성을 잘 대변하는 음양의 성품을 지닌 것으로, 생명력을 파괴하는 가운데 태우는 성질을 지닌 마귀의 빛을 받고 소멸하는 어둠의 영이다. 태양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최초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 원자핵의 양성자 2개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양성자 하나만 분열하고 다른 나머지 양성자 하나는 멸망한 상태에서 (분열된 양성자에서 나온 중성자)와 결합하여 중수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분열된 양성자에서 나온 중성자)는 원래 순도 100퍼센트의 중성자에서 중

성미자가 빠져나간 중성자로서 즉, 빠진 중성자 또한 비틀거리는 중성자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분열된 양성자에서 양성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래 수소 원자핵의 양성자는 순도 100퍼센트의 중성자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양성자 구조형태로 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 중성자를 사로잡고 있는 양성자

아직 과학계에서는 양성자와 음전자가 마귀의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태양의 핵융합반응에서 핵과 핵의 충돌 이전에 수소 원자핵의 바깥 궤도를 에워싸고 돌고 있는 전자구름 층과 양성자 층이 먼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술어를 빌린다면 마귀 영끼리 서로 꼬여 버리는 박자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전자구름 층에서 음전자끼리의 교란 상태의 극대화는 「순도 100퍼센트의 중성자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양성자」를 끌어 잡아당겨 교접한 후 스파크 불꽃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의 양성자와 음전자가 만나 소멸하는 동시에 다시 나머지 음전자에 의해서 전자구름 층은 안정화를 되찾는 순서로 이어가면서 중수소의 원자 형태를 갖추게 된다. 한편 간수쟁이 양성자가 자리를 비움으로써 자유로워진 순도 100퍼센트 중성자는, 안타깝게도 전자구름 층을 뚫고 뛰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지 못한 처지에 있을망정, 그나마 자신 속에 중성미자를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중성미자가 감로이슬성신이 연결되면 온 우주가 빛의 세상으로 개벽될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5>  
“하나님이 주장을 해야 도를 닦는 것이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마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움직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마음인 것이다.

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경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도 못한 것이다.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또한 나라의 의식이 생각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종교이며 진짜 학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장을 해야 도를 닦는 것이다.\*

## 이기는 삶 공것에는 반드시 화근이 따른다

만법전(萬法典) 대명하강(大命下降) 편(編)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이 있다. 내용이 매우 좋아 다 옮겨 본다. 「오중(吾衆)은 내 말을 깊이 듣고 만복(萬福)을 받게 하라. 세상만사(世上萬事) 모두 공것이 없는 줄 깊이 자각(自覺)하고 내가 짓지 아니한 보배(寶貝)가 당(當)하거든 반드시 반가이 받지 마라. 반드시 그 뒤에 화근(禍根)이 따르느니라. 내가 벌지 안한 것이 어디로부터 내게 오리오. 내가 지어야 내 복(福)이요,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느니라. 내가 먹지 않고 남 먹는 것을 보아도 내 배가 부르느냐 생각(生覺)하고 남의 피와 땀을 생각(生覺)해서 남의 공것을 탐(貪)내지 마라.

하지만, 갑자기 돈이 풍부해지면 탈선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유통 또한 마찬가지다. 요즘은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다단계가 아니고 플랫폼 회사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다단계다. 다단계의 원리는 중간 유통 계통을 줄여서 직접 거래하므로 중간 마진과 광고비를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新)유통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가입비 명목으로 몇백만 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가입자는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온 가족과 지인들을 가입시키게 되는데 결국 회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겪다가 대부분은 실패하고, 인맥이 넓고 세일즈에 능한 한두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는 구조다. 자본주의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쩔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사용해 보고 좋다고 생각될 때 회원으로 저렴하게 사서 쓰게 하고 이에 대한 구전(口碑) 광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광고비를 받도록 하는 식의 사업이 정상적인 유통 사업이 아닐까?

남의 피와 땀을 무고(無故)히 앗아 먹으면 후일(後日) 갚는 날에 하나이면 둘로 갚게 되고, 열이면 스물로 갚게 되고, 백(百)이면 이백(二百)으로 갚게 되고, 천(千)이면 이천(二千)으로 갚게 되고, 만(萬)이면 이만(二萬)으로 갚게 되고, 억(億)이면 이억(二億)으로 갚게 되고, 남을 하나 주려 죽게 만들면 나는 둘이 주려 죽게 되고, 남이 죽게 된 것을 살려주면 나는 열이 죽게 되는데 들어가도 다 살게 되고, 남을 하나 음덕(陰德)을 주어 잘되게 하면 나는 열 권속(眷屬)이 자연(自然) 잘 되는 큰 이치(理致)가 천지(天地) 대자연(大自然)에 들었으니 너희는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 말고 남이 있는 복(福)을 잘 짓게 하라. 남이 있는 복(福)이 다른 사람 받은 복(福)보다 더 크고 좋은 복(福)이 많으리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수입보다 적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결국 부도 인생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밥 안 굶고, 옷 안 벗고, 빛 안 지고 살면 됐지, 무엇도 더 바라는가?」하는 말이 있다. 모든 기준은 나의 마음이다.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는 것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하루아침에 알게저가 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자.\*

### 경축 이슬성신절 44회

영광교 하나님의 성도 승리재단 2024년 1월 1일

※ 이슬성신절 경축예배 2부 행사 사회 박철수  
☆ 라준경의 테마가 있는 노래, 「마법의 성」 & 「바람 생생」  
☆ 분부제단 김선애, 「워십댄스 - 순종」 & 「독창 - 영성」  
☆ 남성 5인조 중창단, 「은혜」 - <https://blog.naver.com/pcs03393>  
☆ 무궁화합창단, 「대역사 위하여」 지휘 / 박철수, 반주 / 박인숙  
☆ 무궁화합현악단, 「이슬성신절 노래」 & 「라테츠키 행진곡」 지휘 / 김성우

###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